

# 자녀교육, 은혜를 만나다

현은자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엘리자 M. 피츠패트릭 & 제시카 톨슨 저  
박상은 역 | 생명의 말씀사

책과의 만남도 사람과의 만남처럼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가 종종 있다. 지난 3월에 이 책의 서평을 부탁받았을 때도 그러했다. 그 당시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앞두고 40일간 특별 새벽기도 중이었는데 설교에 사용된 본문이 갈라디아서였다. 갈라디아서의 메시지인 '자유함'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매일 기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책을 받게 된 것이다. 만일 이번 특새를 갈라디아서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 책의 메시지에 이렇게 뜨겁게 공감하였을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와 '자유함'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많은 기독교 양육서를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삶이 무엇인

지 이토록 철저히 붙잡고 있는 책은 여태껏 보지 못하였다.

내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기독교 부모들은 자녀 양육서에 대해 두 가지 모순된 태도를 갖게 되는 것 같다. 하나는 책을 읽고 배워서 좀 더 나은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각오와 기대감이고, 다른 하나는 책에서 배운 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부담감이다. 특히 양육서대로 따라하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은 부모가 신앙에 기초하여 행해야 하는 자녀 양육 지침을 목록화하여 보여주는 책이 아니다. 오히려 부모인 우리의 무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는 우리 스스로도 마음으로부터 이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모들도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왔고 자신의 아이들 또한 그렇게 살기를 기대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으로 인해 좋은 부모라는 평판을 들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책이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순종을 명하셨음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러기에 앞서 먼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들이 율법에 따라 자녀들을 키울 때 또 다른 위험은 그들을 우리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는 아이들로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교회와 가정에서 무심코 자녀에게 하는 행위는 많은 경우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기인하고 있다. “참 잘했어요” 스티커도 그러한 예이다. 우리는 자녀가 착한 일을 할 때마다 “참 잘했어요!”라고 쓰여있는 스티커를 이름표 위에 붙이게 하곤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녀에게 착하게 행동해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일러주어 그들을 늘 인정받고 싶어 애쓰는 사람들로 만든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것을 보이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어준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만일 저자들이 우리 나라의 교회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달란트 시장을 알았다면 같은 지적을 했을 것이다.

혹시 이 책이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만을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해하는 독자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전체 3부로 구성된 이 책의 2부는 “은혜에서 진짜 답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구약과 신약에서 자녀양육에 관

한 구절들을 찾고 복음과 자녀 양육을 실제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소개한다. 예를 들어 5장에서는 자녀교육의 다섯 가지 범주를 ‘감독’, ‘양육’, ‘훈련’, ‘교정’, ‘은혜’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나누고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감독’이란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가르침으로 올바른 행동의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다. ‘복음에 기초한 양육’은 자녀의 영혼에 은혜라는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이며, ‘복음에 기초한 훈련’이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복음에 기초한 교정’은 자녀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의심하거나 잊었을 때 이를 교정해 주는 것이며, ‘복음을 통한 약속’은 예수님이 평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후에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본향으로 데려가 주신다는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날마다 이야기하라고 권고한다. 그러나 만약 자녀가 의무감으로 힘들어 한다면, 자녀에게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자녀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알지 못한다.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 받았다면 율법은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줄 것이다. 순종이 자녀를 의롭게 만들지는 않지만 만약 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안다면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려 할 것이다.

저자의 배경은 책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책의 두 저자는 모녀지간이다. 어머니인 엘리즈 M. 피츠패트릭은 트리니티신학교에서 기독교 상담학 석사학위를 받고 현대 기독교 상담 및 제자도를 연구한 연구소에서 사역하면서 성경에 기초한 상담과 가정생활, 신앙생활을 주제로 책을 펴내고 있다. 딸인 제시카 톰슨은 세 자녀들을 지난 2년간 홈스쿨링을 통해 교육시키고 있다. 책에 포함된 풍



부한 일화는 아마도 그의 가정의 이야기인 듯 싶다.

마지막 장에서 저자 엘리즈 피츠패트릭은 자신의 어두운 성장 배경과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녀는 유년기에 이따금 교회에 다니기는 했지만, 21살이 되기까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사춘기에는 분노로 점철된 시간을 보냈고 17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이혼을 했다. 그리고 몇 년간 마약과 알코올에 찌들어 피폐한 삶을 살았다. 그 후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전문대를 다니고 아들을 돌보는 동안 옆집에 사는 줄리라는 그리스도인을 알게 되어 그의 인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실패와 상처로 점철된 그녀의 과거는 그녀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였는지 모른다.

그는 기독교인을 위한 자녀교육서에서 부모들이 순전히 의지력만으로 자녀를 성공적으로 양육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메시지를 경계하라며, 다시 한번 복음 앞에 타협 없는 태도를 보여준다. 자녀 양육 방식의 뿌리가 부모와 자녀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든진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면 그 책은 사실상 부모의 노력과 의지력을 영화롭게 하는 책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니라는 것이다.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단언한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해야 할 일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이 책을 읽게 된 부모들은 실망할지 모른다. 여기에서는 미술이나 음악, 독서 습관이나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찾아 볼 수 없

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공한 자녀를 둔 성공적인 부모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자녀 교육서가 넘쳐나는 이 사회에서 유독 자신만이 실패한 것 같아 좌절하고 있는 기독교 부모들은 이 책의 메시지를 통해 큰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자녀를 키운다고 했던 행동들이 실은 자신이 좋은 부모로 인정받기 위해서였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저자들은 우리 안에 숨겨진 불신앙과 율법주의를 회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진정한 위로와 따스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녀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법을 배운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강한 자녀를 두었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점에서 다루기 힘든 자녀의 반항은 복음을 증거한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우리가 죄와 용서의 메시지를 꼭 붙들면 우리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p.208)

자녀 양육이란 결국 은혜 안에서 자녀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알아가는 여정임을 깨닫게 해 주는 책이다.



**현자**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이화여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표 저서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아동문학 보기」, 「기독교 유아교육을 위한 시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그림책의 이해 1, 2」, 「세계 그림책의 역사」, 「그림책의 그림읽기」, 「그림책과 예술교육」, 「즐거움 그림책 쓰기」가 있다. 성균관대 생활과학연구소의 그림책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